

에버랜드, 아기판다 푸바오 돌맞이 '해피 판다 워크'

용인 에버랜드가 아기판다 푸바오의 첫 생일을 앞두고 '해피 판다 워크'를 7월 진행한다. 푸바오 생일 20일에는 고객들과 함께 돌잡이 등 생일파티를 연다. 생일파티 초청은 9일부터 '에버랜드', '뿌뿌TV'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 이벤트로 진행한다. 분만실, 대나무 저장고 등 평소 들어갈 수 없던 판다월드 공간을 탐방하는 '판다스틱 홀 투어'도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슈 | 현대차, 솔리드에너지에 1억 달러 투자

차세대 기술 확보...배터리 내재화 나선다

솔리드, 리튬메탈배터리 시제품 선배
중량·비용 | ...주행거리는 2배 늘어
2025년 최종 상용화...연내 상장
현대차, 2027년 전고체 양산 목표
“전동화 관련 다양한 기업에 투자”



현대차가 리튬메탈(Li-Metal) 배터리 개발 업체인 솔리드

에너지시스템(Solid Energy Systems, 이하 솔리드에너지)에 1억 달러(약 1136억 원)를 지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솔리드 에너지와 지분 투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창업자인 차차오후 최고경영자(CEO), SK(株), GM 등과 함께 솔리드 에너지사의 주요 주주 지위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투자한 이유는 리튬메탈 배터리

현대자동차가 솔리드에너지에 투자한 이유는 리튬메탈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보다 상용화 시점이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솔리드에너지는 2012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소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독립한 회사다. 핵심 기술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한층 뛰어난 성능을 지닌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메탈 배터리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배터리 부피와 무게는 크게 줄이고 주행 거리는 2배 이상 크게 늘릴 수 있어, 주요 배터리 개발사와 완성차 기업들이 리튬메탈을 사용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솔리드에너지는 리튬메탈에 고체 형



현대차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메탈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솔리드에너지시스템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솔리드에너지시스템에서 개발한 리튬메탈배터리 시제품. 사진제공 | SK

태의 폴리머코팅을 입히고 리튬의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하는 고농도의 전해질을 사용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한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3월 GM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업화에 가장 근접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사로 주목받고 있다.

솔리드에너지와 GM은 미국 보스턴 인근에 2023년까지 리튬메탈 배터리 시험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2025년 최종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솔리드에너지시스템은 전고체 배터리보다 구현이 쉬운 액체 전해질과 고체 코팅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제품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회사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통해 기본 배터리의 2배에 이르는 긴 주행거리를 실현했으며, 단 15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 배터리 중량과 생산 비용도 줄었다”는 것이 솔리드 에너지의 설명이다.

●현대차, 약진인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주력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큰 약점은 배터리에 있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력 확보를 통해 '배터리 내재화(자체생산)'를 이루지 못하면 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차, UAM(도심 항공모빌리티) 등으로 진화하는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현대차는 2027년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고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손꼽히는 리튬메탈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해 솔리드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열린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배터리 전문업체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2030년경 본격적인 양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가 원하는 시점에 배터리 내재화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관련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솔리드에너지가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현대차의 이번 투자 배경이다. 솔리드에너지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상장 시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스타트업인 미국 퀀텀스케이프(QuantumScape)는 지난 해 9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약 33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투자에 대해 “전동화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솔리드에너지 투자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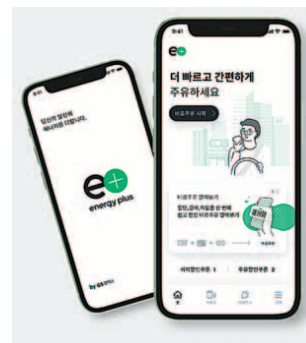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차로 차박하세요”...기아, 2022 레이 출시

기아가 5일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강화한 'The 2022 레이'(사진)를 출시했다.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하고,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해주는 시트 벨트 리마인더를 전 좌석에 기본화했다. 또한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을 기본 탑재해 주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한편 기아는 차박 트렌드를 반영해 캠핑 의자, 테이블, 수납가방, 레이전용 멀티 커튼, 에어 매트 등으로 구성된 캠핑·차박용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7월 중 출시한다. 2022 레이의 가격은 1275만~1580만 원이다.

GS칼텍스, '바로주유' 서비스 앱 선보여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바로주유와 컨시어지서비스 등이 가능한 에너지플러스 모바일 앱(사진)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로 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유종, 주유량 등 주요 패턴과 결제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주문과 결제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도 탑재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GS타워를 거점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고객이 GS타워를 방문해 전담 직원에게 차량 키만 맡기면 주유·세차·주차할 한번에 대해해주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휴가 떠나는 여름철...햇빛 화상 주의해야

여름철 여가활동으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햇빛 알레르기, 햇빛 화상 등의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햇빛 알레르기는 목부터 가슴 앞쪽, 손등, 팔·다리 등에 대부분 나타나며 햇빛이 노출되지 않는 부위까지 퍼지기도 한다. 증상은 다양한데 두드러기와 가렵고 진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햇빛 화상처럼 광독성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

햇빛 화상은 일광화상이라고도 불리며 초기에 햇빛을 받은 부위가 붉어져 피부가 부풀어 오르며 화끈거리거나 과도하게 가려워진다. 심하면 물집이 생길 후 표피가 벗겨지고 오한, 발열, 오심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햇빛 화상은 4~6시간 정도 노출되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6시간이 더 경과하면 증상이 최고에 도달한다. 반면 햇빛 알레르기는 자외선에 노출된 후 짧게는 한 시간 이내, 길게는 수 일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질환이 발생한다. 장시간 실내활동으로 햇빛 적응력이 떨어져 10분 정도의 짧은 노출로도 민감한 반응이 오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품, 약물, 식물 등에 접촉하고 햇빛에 노출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햇빛이 강한 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나갈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 피부 온도를 낮춰준다. 샤워 후 보습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을 준다.

햇빛 알레르기와 햇빛 화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상전문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술외과 이희성 진료과장



김승연 회장 처남, 말 많고 탈 많던 신라젠 인수한 이유는

〈한화그룹〉

엠투엔, 20.75%로 신라젠 최대주주
작년 美 신약전문기업 GFB 인수
신라젠 신약 파이프라인 역할 기대



서훈민 엠투엔 회장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엠투엔은 신주 1875만주(주당 발행가 3200원)의 인수가 600억 원을 15일까지 납입할 예정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엠투엔은 보유지분을 20.75%로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된다.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제시했던 자본금 500억 원 이상 확충과 최대주주 변경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의 조건을 충족해 거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엠투엔, 바이오 공격적 투자로 주목
엠투엔은 제조업과 금융업이 주력인

기업으로 최근 바이오 및 의학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펼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엠투엔을 이끌고 있는 서훈민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현재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회장을 겸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신약개발 전문기업 그린파이어바이오(GFB)를 인수했고 이번 신라젠 인수에 함께 참여했다.

엠투엔은 앞으로 기초 연구와 바이오 벤처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관계사인 GFB를 통해 신라젠의 역량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라젠은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을 개발해 왔으나 2019년 간암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고, 현재 신장암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펙사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가 절실하다. 여기에 GFB가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엠투엔은 6월부터 신라젠에 이식할 GFB의 신약물질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진입했다. 상장 당시 1만3500원이던 주가가 2017년 11월 13만 원대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총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2019년 8월에는 핵심 파이프라인이던 펙사벡이 미국 DMC로부터 임상3상 중단 권고를 받아 3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1만5300원까지 급락했다.

2020년 5월에는 전 경영진이 펙사벡의 임상중단을 미리 알고 공시 전 매도한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최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대표 역시 상장하기 전인 2014년 자기자본없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